

1. 제시문 (가)는 공감의식이 결여된 아이히만의 태도를 보여준다. 나치의 집행 책임자였던 그는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지휘하였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히만은 재판장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은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며 대량학살을 지시한 것보다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더 큰 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히만의 태도는 기본적인 공감의식의 결여와 세뇌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증인이 말했던 유대인에게 학교를 지어준 것 역시 유대인에 대한 공감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기 보다는 그들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는 공감의 실천을 보여준다. 시의 화자는 포스터 속에 들어있는 비둘기를 안쓰럽게 여기는데 이러한 감정이 공감의 시작이 된다. 시가 진행될수록 비둘기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마치 자신이 그 비둘기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답답함을 대신 토로해준다. 또한 이미 생명성이 사라진 비둘기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이 때 비둘기에 대한 감정이 입이 점점 고조되는데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둘기에 대한 완전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아킬리우스의 태도는 다른 두 제시문 어디에도 완전히 속했다고 볼 수 없는 이중적인 속성을 지녔는데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아킬리우스는 뤼카온이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비탄에 빠져있지 말라면서 그를 죽인다. 이는 표면적으로 공감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처럼 완전한 공감의 결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킬리우스는 뤼카온의 죽음과 같은 현상이 곧 자기에게도 다가올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킬리우스는 상대방의 상황이 자신에게 온다는 것 자체는 인식했으나 그것이 공감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2. 제시문 (가)에서 아이히만은 주체성이 결여된 인물이다. 인간에게는 적극적 자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고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이러한 주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히틀러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수동적인 인형이 되었다.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아이히만은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감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인간의 폭력적 속성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시문 (나)의 아킬레우스는 주체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능력이 없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언젠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긴 하지만 그것을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미래의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만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제시문 (라)에서는 완전한 공감이 일어났다. 워딩턴은 자신이 강도와 같이 어머니의 복수를 하는 상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깨달았다. 강도와 자신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여기서 그들에 대한 공감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용서까지 범위를 확장했으며 단순히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공감과 용서를 유도하였다. 이는 주체성과 상상력이 모두 존재한 공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진정한 공감이란 상상력과 주체성이 합쳐진 제시문 (라)와 같은 공감이라 생각한다. 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성이다. 주체성이 없으면 아무리 타인에 대한 상상력이 발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감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그 다음에 타인에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공감은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한 가지 속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정한 공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는 것이 공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